









모두 다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주체철과 더불어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는 황철의 참된 기술자

황해 제철련합기업소 정보기술연구소 소장 원동철 동무에 대한 이야기

우리 당이 옹대한 설계도를 견인 때마다 《강철로 당을 받들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이 준 과업을 경사찬 칠하여 온 황철로동계급이 국가 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서 주체철생선의 동음을 울리며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그들처럼 용광로의 불은 쇠불과도 같이 뜨거운 심장, 부강조국의 강철기둥처럼 굳건한 신념을 지닌 황철 기술자가 있다. 지난 30년간 나라의 급속공업화를 추켜세우는데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온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정보기술연구소 소장 원동철 동무이다.

나는 황철의 기술자이다

우리 인민은 지금도 글자의 철의 기치 휘날리며 주체철생선이 꽃피는 소식을 환희와 격정을 띠고 받아안던 때의 일들을 잊지 못한다. 우리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념념하시었고 온 나라 인민이 무아마에 근대화 시켰다. 원동철 동무는 그 생산정착을 위해 허달없는 시련과 난관의 고비를 넘고세워 온 황철의 미려운 기술자일 줄은 한 사람이다.

위대한 평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험난 끝없는 기술로동계급 경제건설의 전진선에서 서있는 우리 당의 보배를입니다.》

100호초전력전기로조성과 산소염법용광로의 의한 주체철생 산재확립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주체철생선의 정보화,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서 자못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영웅적 집결성-집결성로동계급의 거대한 전진기를 가속화하고 부강조국인 힘과 열정을 더 해온 원동철 동무의 값높은 삶은 우리 당의 불우에서 자란 주체조선의 기술자로서의 사상적정성기여가 얼마나 숭고한가를 말하여준다.

한생 로동계급을 위하여

원동철 동무는 완전히 새로운 우리 식의 설계도면, 원동철련합기업소 기술자와 로동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기초와 표기법으로 된 컴퓨터 3차원설계 방법을 구상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수천부에 달하는 도면설계를 컴퓨터설계연구집단의 힘으로만 두달동안에 끝내는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기 하나만이 아니라 연구집단의 모든 성원들을 힘들고파게도 힘있게 이끌어가는 참된 기술자 원동철 동무의 애국헌신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났다.



원동철 동무 (오른쪽에서 세번째)

올바르고는 남 지어 원동철 동무는 참된 기술자였고, 그것은 주체조선의 지식인들의 값높은 신념을 상징한다. 어머니당의 품에서 나서시라 지식의 열을 높이 쌓은 우리의 파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수령의 믿음에 언제나 심장같이 간직하고 자기 하나의 인력이 아니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지혜도 열정도 팔고 바쳐주시었다.

불라는 탐구의 열정이고

당중앙위원회 4월전진회의에서 제시된 전두목과업들 높이 받들고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과중한 과업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 열정에는 최고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조선, 사회주의자본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원에 총정 한성업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불꽃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싸우고있다.

갑문건설자들의 투쟁본때로

서해갑문 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단 며칠만에 끝났다고 열의가 보였다. 《물러 길어 파야겠소. 보이지 않는 구조물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열정을 속여서야 안되지. 이 구간의 시추작업을 다시 하구요.》

《당일 부름이래면 놀이삼아 산도 옮기고 마라도 배우는 기적은 끊임없이 창조되어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열정이며 기쁨입니다.》



성지에 바쳐가는 충정의 마음

혁신의 동음이 전하는 이야기

애국 편 직 불 공장 에서

성공을 올리였다. 그들은 자제 힘으로 대한기를 개조할것을 결의해나섰다. 하지만 말이 캐 조일때부터 새로 만든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머우기 가정부인들이 총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장의 실정에서 그것은 조금 용인한 일이 아니었다.

성지에 바쳐가는 충정의 마음

성지에 바쳐가는 충정의 마음

